

일본, 유럽과 로켓 기술 협력 추진

H₂와 아리안 로켓 호환성 갖게

최종 개발 단계에 있는 일본의 H₂ 로켓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의 아리안 로켓 사이에 위성발사시 호환성을 갖게하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.

최근 H₂ 로켓 개발관계자는 일본의 우주개발사업단(NASDA)과 아리안 기술개발의 중심인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(CNES)간에 협의가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.

이를 두고 사업위성발사 시장에서 최대 Share를 쥐고 있는 아리안이 美 로켓 대기업에의 대항책으로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견해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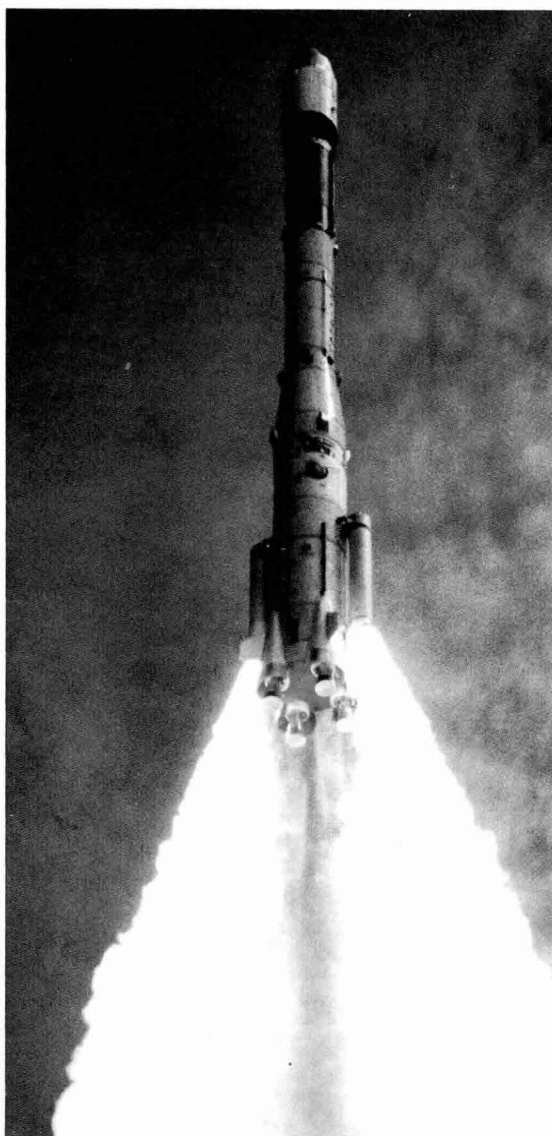
현재 로켓이 인공위성발사에 실패하는 경우, 그후 발사일정에 대폭적인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.

따라서 위성수납부 등의 규격을 H₂와 아리안 쌍방이 동일하여, 상호위성을 바꾸어 사용할수 있는 호환성을 지니게 된다면, 한쪽의 로켓 사고시 다른쪽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.

관계자에 의하면, 아리안측에서 H₂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.

NASDA, CNES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, 이 회의에 장래 H₂를 상업이용하는 민간기업 로켓시스템사와, 아리안로켓트발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담당자가 참가했다.

향후, 쌍방이 발사시에 위성본체에 영향을 주기쉬운 진동·가속도·온도조건·위성 Interface, 사장정비수준의 통일이 가능한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, 올 가을 파리에서 2번째 회합을 열어, 빠르면 내년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.



▲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(CNES)를 중심으로 유럽의 우주관련 회사들이 공동생산하는 ARIANE 4호 발사모습

H₂ 개발은 지난 6월 중순에 주엔진의 최종연소 시험에 성공했다. 아리안과 호환성을 갖게 된다면 장래의 상업위성발사 시장참가의 포석이 될 것이다.

또, 일본측은 아리안뿐만 아니라, 미국 로켓트와의 호환성도 검토할 계획이다.